

“종교도 법·상식으로 관계 정립”

종자연 9일 교회언론회에 공개토론 제안

개신교가 종교편향 역할별을 받고 있다는 내용의 신문광고를 게재한 것과 관련, 종교자유정책연구원(공통대표 박광서, 이하 종자연)이 한국교회언론회(이하 교회언론회)에 공개토론회를 제안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교회언론회는 11월 4일 일간지 신문광고에 정부의 종교편향정책을 시정하라고 요구했다. 광고는 ‘십자가 트리를 금지할시 초파일 연등도 금지해야 한다’ ‘청와대 내 불상을 철거 하라’고 말하는 등 개신교가 역할별을 당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이에 종자연은 11월 9일 성명서를 통해 “교회언론의 이와 같은 주장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상황을 보는 최소한의 균형 있는 시각이 필요하다”

고 반박했다. 종자연은 “개신교가 압도적 비율을 차지하는 많은 종교사립학교에서 여전히 전교생 강제예배 등 종교강요와 인권침해 행위가 빈발하고 있다”며 “이러한 개인의 종교자유를 침해하는 현실은 언급하지 않은 채 종교단체의 선교자유만을 옹호하는 주장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또 종자연은 “종교가 시민사회 영역인 만큼 한국종교도 법과 상식의 시민적 잣대로 시민사회의 관계를 정립해야 한다”며 교회언론회가 종교단체, 시민단체, 시민들이 참여하는 열린 토론의 장에 나오기를 촉구했다.

박선주 기자

“사랑 양념 듬뿍 김장 담아요”

먹거리협·SK텔레콤 13일 조계사에서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성공회 푸드뱅크,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 등이 참여하는 국내 최대 민간푸드뱅크 조직인 먹거리나눔기운동



왼쪽부터 김현배 목사, SKT 정만원 대표이사, 총무원장 자승 스님, 김재열 신부

장로회총회장 김현배 목사 등 3대 교단대표와 협의회 공동대표인 김재열 신부,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 대오 스님, 배태진 목사, 이

경의회의와 SK텔레콤의 자원봉사자들이 11월 13일 조계사에서 ‘행복 나눔김장행사’를 진행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 대한성공회 서울교구장 김근상 주교, 한국기독교

이나는 기자

T&SOLAR 태양광 전지판 기증

부경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北 우리민족햇빛발전소에 전달

부산·경남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상임공동대표 정영·이영)이 북한 평양에 건립을 추진 중인 우리민족햇빛발전소에 사용될 태양광 전지판을 기증한다.

11월 13일 오후 3시 범어사 주지실에서 (주)T&SOLAR(대표이사 김용균)가 100kW 태양광 전지판을 부산경남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을 통해 북한에 전달하는 기증식을 개최했다.



13일 전지판 기증식을 가진 T&SOLAR 김용균 대표이사, 정영 스님, 부경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이영 상임공동대표(오른쪽 두번째부터)

7억 원 규모로 추산된다.

이번 전지판 기증식은 부산경남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올 초부터 북한 평양 낭랑구역에 500kW급 태양발전소 건립을 추진해 오던 중, (주)T&SOLAR가 흔쾌히 기증하기로 해 일리게 됐다.

범어사 주지 정영 스님은 “우리 단체는 대북지원모임으로 그간 북측의 크고 작은 민간차원의 교류를 이어오던 중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시설이 턱없이 부족해 안타까웠다”며 “핵이 아닌 자연의 에너지를 이용해 북한에서 전기를 생산해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고심하던 중 햇빛발전소를 건립하기로 했는데, 흔쾌히 태양광 전지판을 기증해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주)T&SOLAR 김용균 대표이사는 “북측이 어렵다는 것은 온 지구가 다 아는 일인데, 원자력이 아닌 무한한 자연인 햇빛을 이용해 에너지를 만들 것이라고 해 나중으로도 의의가 있을 것 같아 기증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날 기증식은 부산경남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이영 상임공동대표, 구자상·주병호 공동대표, T&SOLAR 김용균 대표이사 및 박춘희 이사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박선주 기자 hdbp@hammail.net

“지리산을 살려주세요” SOS

지리산불교연대준비위 등 천왕봉서 퍼포먼스

지리산불교연대준비위원회(공동대표 법인과 지리산권민사회단체협의회(대표 박두규) 관계자들이 11월 1일 지리산 정상인 천왕봉에서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를 반대하는 ‘SOS지리산’ 퍼포먼스 행사를 열었다.



지리산불교연대준비위원회가 천왕봉에서 ‘SOS지리산’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지리산환경연대 제공

이날 행사에서 지리산불교연대와 지리산권민사회단체협의회는 ‘지리산에 쫓겨난 새끼’를 주창했다. 이들은 이날 지리산 자락에 살고 있는 주민들과 함께 ‘SOS 지리산’이라는 글씨가 쓰인 대형 풍선을 띄우고, 반야봉에서 산상시위를 하고 있는 스님들에게 전달하기 위한 봉화를 피웠다.

한편, 연대의 일부 회원들은 10월 12일부터 ‘지리산 케이블카 반대, 자연공원법개정안 철회’를 요구하며 지리산 천왕봉, 반야봉, 노고단

등지에서 무기한 산상시위에 돌입했다.

지리산권민사회단체협의회는 지리산생명연대, 남원생협, 섬진강과 지리산사람들, 함양시민연대 등 지리산 주변 5개 시·군에서 활동하는 시민사회단체로 구성했다.

민족성지 지리산을 위한 불교연대에는 화엄사, 하동 쌍계사, 함양 벽송사, 산청 대원사, 남원 실상사 등 지리산에 위치한 5개 사찰이 참여하고 있다.

박선주 기자

박병선 ‘직지’ 대모

조계종 부실장단 위문

조계종 총무원 부·실장단은 임명 직후 첫 휴일인 11월 14일 암투병 중인 <직지심체요절(直指心體要節)>의 대모 서지학자 박병선(82·사진) 박사를 위문하고 격려금 등을 전달했다.



노덕현 기자

1928년 서울에서 출생해 서울대 역사학과를 졸업한 박 박사는 프랑스 국립도서관 사서로 근무하며 ‘직지’를 발견 한 뒤 1972년 파리 세계 동양학 대회에서 세계 최고 금속활자본으로 인정받기까지 산과 역할을 해냈다.

박 박사는 지난 9월 초 청주직지축제 참가 차 입국, 건강검진에서 직장암 4기를 진단받고 수원 성빈센트 병원에서 투병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덕현 기자

“친일·항일행적 객관화 필요”

‘친일인명사전’ 불교계 인사 54명 수록

편찬 작업을 시작한 지 8년 만에 공개된 <친일인명사전>이 한국사회에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민족문제연구소와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위원장 윤경로)가 11월 8일 발표한 <친일인명사전>에 수록된 총 4389명 친일인사 중 불교계 인사 54명도 포함됐다.

그중 가장 논란이 되고있는 인사는 전 조계종 총무원장 이종욱 스님이다. 스님은 월정사에 있을 당시인 1919년 만세 시위에 참가했다. 3·1 운동의 성과로 한성임시정부가 세워지자 강원도 대표로 참가했으며, 상해 임시정부 임시의정원에도 강원도 대표를 맡기도 했다.

그러나 스님은 1920년대 상해에서 국내로 돌아와 조선총독부가 임명하는 월정사 주지가 됐으며 종회(宗會) 의장으로도 선출됐다. 1937년 발발한 중일전쟁 이후에는 기원법회나 시국강연회를 열어 일제를 적극 지지했으며 <신불교> 등의 잡지에 친일 논설을 쓰기도 했다.

한국불교근현대사를 연구하는 부천대 김광식 교수는 “지암(이종욱) 스님에 대해서는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것 따져 볼 필요가 있다”며 “다른 분야에서는 후손들이 듣고 일

어서고 있지만 불교계는 후손이 없어 나서는 이가 없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또 “불교계가 친일과 항일 모두에 관심이 없는 것을 반성하고 이번 기회에 학문적으로 객관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불교계 일부에서는 스님의 이름이 친일인사로 등재되는 것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지만 편찬위원들은 친일행적 자료에 근거해 이의제기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친일인명사전>에 수록된 불교계 인사 중에는 지암 스님과 같이 애국자로 인정된 현 총무원에 안장된 박영희 스님, 차상명 스님, 허영호 스님 등도 포함됐다.

<친일인명사전>을 편찬한 윤경로 위원장은 “역사는 고백하는 것이 라고 생각한다. 친일인명사전 편찬도 그 중 한가지다”며 “국가가 외면한 미해결 과제를 시민들이 직접 나서 역사정의 실현의 단서를 열었다는 점이 무엇보다 의미 있는 성과”라고 밝혔다.

민족문제연구소 측은 “한국 근현대사 급기의 영역이 최초로 공개됨으로써 퇴행적 역사를 성찰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선주 기자

‘4대강’ 사업 위한 소송 나서

4대강사업저지국민소송단 운하백지화 소송

정부의 ‘4대강 정비’ 사업이 11월 10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불교환경·시민단체들이 사업중단을 위한 위헌소송에 나섰다.

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수경)를 비롯한 4대강사업저지국민소송단(이하 4대강법대위)은 운하백지화를 위한 위헌 소송을 진행한다.

국민소송청구인단은 11월 11일 4대강 사업 반대 공동소송대리인단을 발표했다. 국민소송청구인단은 총 4584명으로 변호인단(단장 임통일) 28명이 구성됐다. 국민소송단은 11월 24일 국민소송 소장장을 법원에 제출한다.

4대강저지법대위는 “4대강사업의 사전환경영향 검토와 환경영향평가의 무용지물이 됐고, 국가재정사용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해 왔던 예비타당성조사 90%를 면제받았다. 이것은 국가재정법 시행령의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전국교의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경제단체는 이번 사업이 경제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지만 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수경)와 4대강법대위 등 전국교의 환경관련 시민·사회단체는 ‘대규모 환경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깊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정우식 불교환경연대 사무처장은 “12월 남원 실상사에서 수경 스님 등 한국환경회의 회원들과 위원회를 소송 준비와 전체적인 운하백지화에 대한 논의를 했고, 17일 첫 착공식을 하는 여주 낙동강에서 현장대회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광명불교환경연대와 광명YMCA는 4대강 사업 중단을 기원하는 ‘광명들레길 순례’를 11월 1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진행했다.

박선주 기자

社告

2009빛고을불교아카데미

여래의 使者를 만나다-한국불교 포교의 신화를 일구는 스님들

일시: 2009년 10월 27(화)~12월1일(화)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장소: 광주 동구 KT문화관 대강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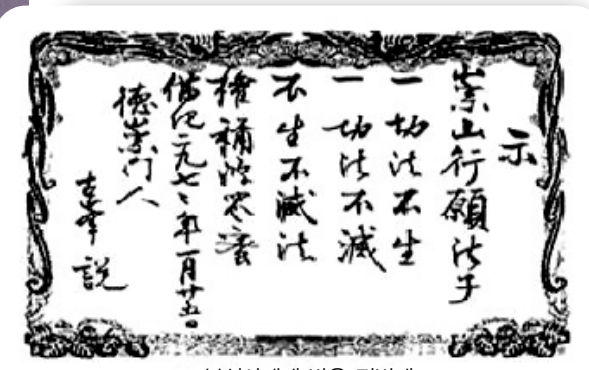
공동주최: 광주불교사암연합회 불교TV 현대불교

| | | | |
|----|-------|-------------------|------------------|
| 1강 | 10/27 | 신심과 원력의 길 | 해인스님(제주 약현사 회주) |
| 2강 | 11/3 | 업력의 삶과 원력의 삶 | 정락스님(前조계종 포교원장) |
| 3강 | 11/10 | 도심 속 천년사찰을 깨우다 | 명진스님(봉은사 주지) |
| 4강 | 11/17 | 아름다운 불광공동체 | 지홍스님(불광사 회주) |
| 5강 | 11/24 | 수행, 일상생활에서 행복을 찾다 | 법륜스님(정토회 지도법사) |
| 6강 | 12/1 | 시심(詩心)으로 세상을 깨우다 | 청화스님(前 조계종 교육원장) |



승산 행원 대종사 5주기 추모다례 및 사리탑 제막식

귀의 삼보하옵고, 한국불교 근현대사의 산증인으로 일생을 국제포교에 헌신하시며 한국불교의 가치를 세계 속에 드높이신 승산 행원대종사의 열반 5주기를 맞이하여 추모다례 및 사리탑 제막식을 봉행코자 하오니 교계 원로대덕 큰스님과 사부대중의 무무 동참을 바랍니다.



고봉선사에게 받은 전법계

◇일시 : 2009년 12월 4일(금) 11시

◇장소 : 화계사 대적광전

◇주최 : 승산 행원 대종사 문도회
대한불교조계종 화계사 사부대중